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4(土) 흐리고한때비 25/32℃ 25(日) 구름 많음 25/30℃

단기 4343년 (음력 6월 1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34호 1판 2010년 7월 24일 토요일

당지도부 총출동 남구보선 대접전

주말·휴일 부동층 공략 치열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은 주말과 휴일 대규모 인력과 조직을 동원한 집중 유세에 나서는 등 선거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장병완 후보 측은 주말인 24일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동철·조영택·이용섭·이낙연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하는 집중 유세를 벌이며 세 확산에 나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남구 봉선동 이마트 앞에서 지지자 500여 명과 함께 장 후보 지원유세를 벌인 뒤 백운 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상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23일에는 정동영 의원이 광주 남구를 방문해 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2~23일 1박2일 지원유세를 마치고 상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병완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시키겠다"며 남구와 광주 발전을 위해 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상임위원 배분 권한이 있는 박 대표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장관을 지낸 예산전문가인 장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과 오병윤 후보 측도 주말과 휴일 대규모 총력 유세전을 펼친다.

민주노동당은 24일 오후 4시 남구 봉선동 쌍용아파트 사거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야 4당 당원, 각계 시민사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후보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정희 당 대표와 곽정숙 의원은 이날부터 남구에 상주하며, 동네별 저인망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25일부터는 강기갑·권영길 전 대표들이 가세해 남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직투표를 위한 막바지 표심 잡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원유세를 통해 "비 민주 야 4당과 시민사회 오병윤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광주를 바꾸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23일에는 국민참여당 정찬용, 진보신당 윤난실, 민주노동당 장원섭 전 광주시장 후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오병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최대격전지인 서울 은평을의 '야권 후보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은평을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여론조사에 착수해 25일 단일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민주당 장병완 후보가 23일 같은 당 정동영 의원, 김재균 의원과 함께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서 노인 유권자의 손을 잡고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23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광주 남구 진월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돌며 주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보선 TV토론 '사회자' 논란

선관위 선정 교수 특정후보 지지 명단에 포함
당사자 "지지 표명한 적 없다" 명의도용 시비도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 인사 명단에 포함됐던 광주지역 대학교수가 선관위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혀 '차명' 논란도 일고 있다.

23일 광주 남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날 밤 7시30분부터 8시25분까지 KBS 광주방송총국 1층 공개홀에서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사회는 광주대학교 류 모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류 교수는 이날 오전 광주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발표한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782명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민주당 장병완 후보 측은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류 교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토론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사회자·토론자 명단을 포함한 TV토론회 개최 공고를 한 만큼 생방송 당일에 사회자가 특정후보 지지인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당혹스러웠다"면서 "하지만 류 교수에게 진위를 파악한 결과 자신은 지지명단에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해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선언과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지 성명서 내용도 받아 보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지선언 명단을 작성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내 이름을 임의로 넣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와 류 교수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선거방송위원회에서 작성한 원고대로 진행하는 만큼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류 교수가 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민노당이 지지 인사 명단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도용"이라며 "오 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선언자 명단 중 실무착오로 일부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지역민과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문제는 연석회의 책임 아래 진행됐고 오병윤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민주당이 사소한 실무적 착오를 뒤늦게 문제삼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지극히 옹졸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간인 사찰의혹 자고나면 커진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 중진의원 부인 사찰 및 참여정부 출신 인사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강력 반발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두 사안을 묶어 현 정권을 '사찰공화국'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남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여당의원으로서 그동안 우리 정부를 만들기 위해 왜 노력했는지, 그런 회의까지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거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성역 없이 검찰에서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변에서 더 들은 이야기는 없느냐'는 질문에 "정두언, 정태근 의원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두언, 정태근 두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권내 반대파의 목소리를 입막음하기 위해 약점을 잡아 권력을 남용한 행태가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도 무자비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對與)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감청이 이뤄졌던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진행되던 때"라면서 "노 전 대통령 주변을 그물망처럼 훑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장애고교생 기능사 자격증 ▶3면 국민주 막걸리 열풍 ▶4면 여름나기 보양식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女월드컵도 4강신화" ▶14면